

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, 논산시 관내 외국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성공적으로 마쳐

-관내 외국인들의 실태파악을 통해
외국인 주민과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-

- 논산시(시장 황명선)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‘논산시 관내 외국인 실태 연구용역’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.
- 중간보고회는 추진사항들을 점검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, 유병훈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, 용역수행기관인 금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.
- 지난 5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논산시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화합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. 이를 위해 유관기관 방문인터뷰를 시작으로 40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, 결혼이주민,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설문조사는 한국어, 영어, 러시아어, 베트남어,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실시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 환경 및 어려움 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이날 논의는 다양한 관계자 인터뷰 및 통계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, 현재 시가 부족하거나 취약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. 또한 현실적으로 외국인 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, 지자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정책 제안을 요청하였다.
- 시 관계자는 “다음달 말 학술용역 종료를 앞두고 내용을 꼼꼼히 보완하여 외국인 주민과 지역발전 및 협력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